

제39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2. 10. 22(월), 15: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강명구 의장, 강희진 의원, 김진우 의원, 윤갑희 의원, 윤성승 의원, 이강준 의원, 이순일 의원, 이재호 의원, 이홍평 의원, 이효철 의원, 임정민 의원

- 총 13명 중 11명 참석 : 박윤규 의원, 조중열 의원 불참

의장 강명구 : 성원이 되었기에 제39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고안건 2건, 학칙심의 및 사전보고,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안건 중에 그 사이 6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A+급의 펀드투자 보고서를 써주신 이순일 교수님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고해주시겠습니다. 학칙심의 관련하여 간단한 사전 보고 하나 있습니다. 내일이 교무회의인데 저희가 또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받고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찬반논의 형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논의사항은 3가지입니다. 대학평의원회 개최일정 정례화와 건축위원회 학생대표 관련 여러 논란사항을 마무리 짓고 학부생 주차 관련 건이 올라와있습니다. 먼저 보고안건 간단하게 받고 학칙심의와 논의사항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안건은 가능한 짧은 시간 내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처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6시까지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계속 다른 쪽 회의 약속이 있어서요.

의장 강명구 : 만약 대학평의원회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원래 약속하기로는 제가 보고 때 보고자료를 발표하기로

< 간서명란 >

의장  - 1 -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못 들어서...

의장 강명구 : 논의사항에 대학평의원회 개최일정 정례화도 기획처장님으로 되어있고요, 건축위원회 학생 관련 문제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펀드투자조사위원회 보고도 총무처장님과 같이 들으셔야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펀드문제는 11월 8일에 발표하신다고해서 제가 참석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럼 이렇게 하시죠. 대학컨설팅 결과 및 중앙일보 대학평가 간단하게 말씀주시고 가셨다가 4시 반 정도에 다시 와주시죠. 꼭 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기획처장님, 대학컨설팅 결과와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김민구 기획처장이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 및 대학 경영컨설팅 진행결과에 대해 보고하다.]

의장 강명구 : 보고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간단하게 10분정도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 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교학직군제가 무엇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현재 조교가 임시직군 아십니까? 그것을 정규직화 하여 연봉을 한 2,400만원~5,000만원 범위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년까지 가는 미국의 secretary 같은 직군이에요.

의장 강명구 :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문화 정서상... 그리고 과거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때를 써서 직군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미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리 직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학직군도 일단 단과대학 교학팀부터 시행하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과가 신설된다든가 하면 학과장 발령을 내야하는데 대학평의원회를 자주 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학칙이 개정되면 사전에 3주 이상 공고를

< 간서명 란 >

의장  -2

해야 하고 교무회의를 통과해도 최종적으로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직교수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것은 서면결재를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의원 이홍평 : 중앙일보 대학평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표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는 모든 지표를 들여다봤고 어떤 지표를 올릴 수 있는지 봤습니다. 연구지표나 재정지표는 상당히 어렵고, 나머지는 지표를 조정해서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13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인데, 최근 H대, D대, K대 등 이런 곳들이 지표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교수 1인당 논문 한편씩 쓰면 얼마씩 주고... 과거에는 저희들도 3년 기간을 두고 그런 작업을 했었고, 물론 저희가 재정이 풍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드리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H대, D대, K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S대가 과거에 했던 방법이고, 저희도 벌써 다 써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른 대학들이 지표관리를 하고 있고 국제화 지표와 장학금 지표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는 등록금을 3%인하하고 장학금을 조금씩 늘렸는데 그에 비해 다른 학교는 100억씩 장학금을 늘렸습니다. 우리학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지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결국은 교육여건 및 재정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교육여건 및 재정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는데 실제로 우리학교가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의 절대 액수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자원 배분의 문제인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다면 왜 자금이 부족한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이러한 겁니다. 실제로 지표 중 하나가 등록금 대비 교육비라는 것인데 이전에는 교육비 환원율이라고 했는데, 등록금 대비 교육비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공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등록금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들이 과거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 우리학교 전체 수입에서 세입 중

납입금 비중이 점수가 나쁩니다. 등록금이 우리 재원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자원을 투입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처장께서도 100억원만 더 있으면 우리학교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학교에서 왜 100억원이라는 숫자가 비는가를 몇 번 기록에 남긴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단에서 써야하는 돈을 교비로 지급해서 나간 돈을 다 더하면, 토지구입비와 법정전입금을 합해 100억원이 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펀드투자에서 손실된 금액도 있고... 실제 돈이 없게 된 사실이, 대학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가용 재원이 줄어든 것이고,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지금보다 엑스트라로 100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펀드문제나 이런 것은 당연히 손실을 봐서 생기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문제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로 가면 대부분 국립대학교가 다 올라옵니다. 지금 지표도 사립대학교만 놓고 보면 우리학교가 나쁜 지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좋은 대학이 되려면 교수도 더 뽑아야하고 경쟁력 있는 교수를 뽑으려면 지금보다 인건비도 올려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인건비가 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낮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키우려면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등록금 대비를 하면 국립대학이 등록금이 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죠.

의장 강명구 : 이순일 교수님은 숲을 보고 질문한 것인데 나무 하나하나씩 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맥락에서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숲을 보고 얘기를 해도 그것에 의해서 나빠진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13위에서 25위로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국립대학이 채우고 나면 실제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립대학은 지금도 몇 개 안되고 과거에도 몇 개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결국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대학의 사이즈가 작아서 재정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립대학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지금 이 표에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서울시립대를 빼고 나면 우리 위에 있는 대학은 전부 사립대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립학교들이 저희보다 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립학교들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외형규모가 작은 것 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지향점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자꾸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교육여건 및 재정을 근본적 해결하려면 우리 학교가 재정적으로 많아야하고 당연히 우리학교 사이즈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바꿀 수는 없고요, 재정이 더 좋아지면 교육여건 및 재정의 점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S대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여건 및 재정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Top 10안에 들어갑니다. 교육여건 및 재정이 S대는 32위입니다. I대는 22위, D대는 28위입니다. 당연히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단도 지금보다 지원을 좀 늘려주고 학교도 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평의원 윤갑희 : 이순일 교수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중앙일보 평가에 응답도 하고 관심 갖고 보면서, 학과별로 각계각층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몇 등 떨어졌는데, 적어도 10위권 바로 안팎이라고 한다면 각 과별로 1~2등 하는 학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대학교는 그런 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산업공학과 인가요 거기가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있던 것 같고 거기를 빼면 그렇게 눈에 띄는 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학과별로도 노력해야겠지만 학교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좋은 지적이십니다. Top 10안에 들려면 적어도 Top 5안에 들어가는 학과가 5개정도 있어야하고, Top 10 안에 들어가는 학과가 10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에서 조차도 저희가 지금까지 학부제로 왔기 때문에 학과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정

그래서 산업공학과와 몇 군데를 빼놓고는 빠져있고요. 저희가 Top 10 안에 들 수 있는 과는 의대, 간호대, 약대, 산업공학과, e-비즈니스, 교통공학과 정도입니다. 그런데 e-비즈니스나 교통공학과는 전국에 몇 개 안됩니다. 교장선생님 말씀하신대로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메이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라든지 이런 과들이 20위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이제 학과제로 바꿨고 학과에 대한 평가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과별 평가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직접 반영이 되나요? 일종의 발전 전략으로 말씀을 하시는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학과가 발전을 안 하면 이 지표가 나빠진다는 거죠. 연구 지표는 교수에 대한 연구력이거든요. 학과의 등수라는 게 그 학과에 있는 교수의 연구지표잖아요. 그것이 모여서 반영이 되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약간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발전전략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게하고 나머지가 끌려가게 하는 방안이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앙일보 대학평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는 그런 방식의 평가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학교의 인문사회 교수 당 국내 논문 이렇게 되어있으면 인문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표를 올리는 것은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어떤 접근인가요? 인문대는 완전히 학과제로 가있고, 사회과학대는 학과제의 중간 정도를 취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평의원 이재호 : 학과제가 이것의 답인가요?

의장 강명구 : 학과제로 가면 학교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과가 섞여 있어서 각자의 전공이 어떤 status인지 잘 모릅니다. 인지가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인지 시켜주고 encourage하고, 어떻게 하면 교내연구비를 증액해서 motivation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국제논문 지표가 영향력 지수를 반영한 3점 스케일로 가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것도 정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야한다. 지금처럼 SCI급 논문 몇 개로

< 간서명 란 >

의장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의과대학 교수들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이전에 본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연구 데이터와 의료원에서 파악한 데이터 사이에 굉장히 편차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간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에임즈 데이터는 연동이 안 되어서 정확한 의료원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정보공시에 들어가는 자료에는 KRI 데이터 연동해서 쓰기 때문에 외부 평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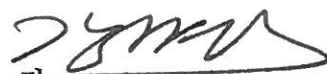
평의원 김진우 : 교육여건 및 재정은 충분히 논의되었고 교수연구 분야가 많이 저조한 편인데요. 평가 세부지표를 보더라도 교수님들의 논문수가 좌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순환 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가 많이 되고 외부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연구력 활성화 방안 10가지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그러한 것입니다. 대학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고민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우수그룹을 육성하고 리서치 펠로우 제도를 통해서 소위 교수들의 역할분담 같은 것을 제안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교육트랙을 만들어서 연구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트랙을 타서 강의를 더 하고 연구우수 교수들은 책임시수를 감면하는 제도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구력 강화 10가지 제도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비도 조금 더 활성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본부에서 진단을 하신 게 상당히 정확하실 겁니다만 진단을 하신 다음에 정책화 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대학의 BK 대형사업단 두 개가 전부 융합분야입니다. 분자과학도 그렇고 에너지시스템도 그렇고... 융합분야로 연구의 활로를 찾는데 제도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을 현실로 인정을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원래의 모(母)과들은 왜 그렇게 빈약하냐는 얘기가 나와서 양쪽 다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원 강화를 말씀해주셨는데, 거꾸로 융합분야를 하면서 겪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 간서명 란 >

의장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학에도 프로 스포츠에서 신인선수를 양성하는 것과 같은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학으로 말하자면 학부입니다. 학부가 있어야 대학원생들이 수급되는 겁니다. 대학원은 융합분야를 강조하더라도 학부교육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학과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4~5년 전부터 했는데 본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총장님이 바뀌시고 수용 하셨는데, 시차가 critical하게 늦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4~5년 전부터 문제를 느끼고 학과제로 돌아가서 학부 교육을 강화하고 그 학생들이 융합분야 대학원에 자연스럽게 오게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지금 한 발짝 뒤늦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시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top-down도 필요하지만 bottom-up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top-down을 하셨는데 아래에서 교수들의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수들의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명구 : 그게 아마 소통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 같습니다. 3억 들여서 대학 컨설팅 진행하셨는데, 외부 것도 많이 듣고 중앙일보 평가도 분석하셨습니다. 듣지 않은 것은 교내의 목소리입니다. 소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인력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교육도 잘하고 좋은 대학입니다. 소통을 꼭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경영컨설팅 진행한 것 중 제일 핵심적인 것을 다 보여준 것 인가요? 컨설팅에 저도 인터뷰 참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각 학과 한두 명씩 모여서 디스커션을 했는데 그때 이 부분 보다도 더 핵심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게 뭐 였죠?

의장 강명구 : 리더십과 펀드, 재단의 재정지원 문제겠죠. 이렇게 되면 보고서가 왜곡이 되는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컨설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성원의 피드백과 디스커션 등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재호 교수님이 리더십 얘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 간서명 란 >

의 장  - 8 -

평의원 이재호 : 제가 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가 그랬습니다.

간사 김승권 :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리더십이나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담는 것은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인사제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 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의장 강명구 : 부분적으로 발췌하신 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이런 겁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리더십을 어떻게 함양하면 좋을까라는 것은 컨설팅의 메인 아젠다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소통만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에서 리더십이나 소통을 메인 아젠다로 잡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컨설팅에서 그런 아젠다가 안 나가지 않나요?

평의원 이재호 : 방편까지도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죠. 구성원들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선출하는데 담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현실적 이슈죠.

기획처장 김민구 : 현실적인 이슈 중에 리더십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총장을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것은 컨설팅 아젠다에 없었습니다. 평의원회에서 총장을 뽑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시면, 그것은 컨설팅에서 할 문제라기보다는 평의원이나 교수회나 학생회를 통해서 제안하고, 2년 가까이 되었으니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의장 강명구 : 총장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오랫동안 수차례 제기한 바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제기될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 건은 교수회나 평의원회가 제안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결국은 대학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교수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수사회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나온 의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디스커션 중 반정도 가까운 시간이 그 부분에 할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획처장 김민구 : 실제로 제가 디스커션을 할 때에도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인지를 못했거든요.

간사 김승권 : 2건이 있었는데요. 1건은 순수한 컨설팅이었고요, 그 전 1건은 대학구성원 의식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그 둘은 지금 다른 겁니까?

간사 김승권 : 네 다른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구성원 의식조사에 대한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강명구 : 그 2건은 다른 회사가 한겁니까?

간사 김승권 : 네

의장 강명구 : 이거는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고 그거는 저희한테 보고 안하신 거죠?

간사 김승권 : 그때는 교무회의까지 다 보고했는데 평의원회는 보고 안한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한테는 보고 안하셨습니다. 없는 돈 3억씩 큰 돈 들여서 했는데 들인 돈 3억 만큼 거둘게 있을까요? 컨설팅도 컨설팅이지만 아주대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먼저 사람과 소통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4시에 처장님 약속 있으시니 먼저 가시고요. 이순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는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여기서 이순일 교수님과 한봉희 교수님께 박수를 쳐 드려야 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단한 보고서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의 요약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순일 평의원이 펀드투자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정보공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요약 보고하다.]

의장 강명구 : 들으셨으니까 6개월간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잘 아실겁니다. 제가 2009년과 2010년 3회에 걸쳐서 대학측이 내놓은 공개담화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알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참 답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일보전진입니다. 이 조사보고서가 완벽하게 세밀하게 다 그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왜 그랬느

< 간서명 란 >

의 장  - 10 -

냐에 대해서는 여백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재단과 대학본부가 도덕적 책무를 지고 답할 문제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느냐는 자세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매달 재단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단은 감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단과 대학의 연결고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재단과 대학본부가 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주대학이 앞으로 나가는데 초석이 되고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폄하하거나 별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밖에서 제도 고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위계질서를 세우고 한마음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때 훌륭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김진우 : 상당히 고생해서 해주신 것 감사하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펀드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결재가 있었고 승인권자가 있었을텐데. 지금도 환매를 하네 안하네 하는데 관련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받고 있는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평의원 이순일 : 그것에 관련된 문서도 일부 봤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게 저희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문서에 근거한 것만 조사 결과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별도의 위원회가 규정상은 있어야 했는데 그게 가능했는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실제 펀드투자 의사결정 과정은 결재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직원 한사람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재권자와 그 상급자의 결재가 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환매에 대해서는 본부에 수차례 적절한 채널을 만들기를 요청했고, 그것도 만드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기금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없었고 사후대책으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총무처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금에 대한 투자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학교에 있는 돈을 기금이나 이런 데에 투자하고 있지 않죠.

평의원 김진우 : 펀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일환으로 김병관처장님

< 간서명 란 >

의  장

제실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건이 터져서 빨리 만들어서 하자고 하여서 그 당시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아까 발표하실 때 수익을 창출했을 때는 몰랐고 얼마가 빠져나간 다음에...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갔나요?

평의원 이순일 : 저희가 기록을 확인한 것은 2005년까지 입니다. 2007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펀드투자는 모두 위법입니다. 2007년 12월부터는 기금을 가지고 목적별 기금의 반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는데, 그보다 전인 2005년부터 투자한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2005년 전의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5년 전에도 펀드투자가 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왜곡된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달리 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것도 더 잘못된 것과 덜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펀드투자를 법적인 근거 없이 시행하고 나서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지고 했을 때 그것에 맞추느라고 한 조치들은 한 번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덜 나쁜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LS에 의해 확정손실이 난 것을 아닌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은 교과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을 때의 의도는 아마도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구성원들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기에 감추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회계처리의 왜곡과는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처리가 진행된다면 그 외에 다른 건에 있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새로 발견한 사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미 2008년에 확정 손실 난 펀드가 2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거의 14억 원 정도 되는 손실규모입니다. 그때 만약에 30억 투자해서 50% 손실 난 것이 알려졌으면, 경종이 울렸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무분별한 펀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춰진 것입니다. 저희가 추정 자문을 합니다. 추정에 분명히 확정손실을 적어야하는데 마이너스가 난 것을 선수수

< 간서명 란 >

의  장

익으로 잡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는 원금에서 털어버린 것처럼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30억짜리 투자가 원금이 16억 얼마짜리 투자이고 매수한 원금으로 환매한 것처럼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부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면 더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다른 펀드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그동안의 모든 예치자금에 대한 기록을 엑셀자료화 하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대체결의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원금 30억짜리가 환매처리가 되면서 18억이 손실이 나고 원금이 16억이 남았다는 것을 환매시점에서 몰랐다는 것을 본부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희가 펀드 문제를 평의원회에서 다루며 자료공개를 몇 번 요청해서 총무처장과 기획처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확정손실이 났다는 것을 한 번도 말씀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시지만 여진이 클 것을 우려해서 함구하신건지 모르겠지만...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평가 손실이 100억인 것과 확정 손실이 15억이 난 것을 회계처리로 감추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같이 조사하신 회계사 중 한분이 예산을 짤 때는 사용가능한 자금기반으로 짜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며, 기획처도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을 해보니 이사장님도 똑같은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사용가능한 금액기반으로 짜라. 평가손실이 났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짜야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느냐. 장부상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짰다는 것은 회계적 관행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회계 법인에서도 2가지 해석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위언회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도 회계전문가 이거든요. 전문가들끼리 다시 한 번 얘기해보고 그 당시에 성도회계법인에서 유권해석을 해준 것이 있거든요. 한번보세요. 정확하게 맞는 대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봐서... 그 사람들도 전문가인데 그렇게 주장을 했

< 간서명 란 >

의 장  - 13 -

었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계사님 두 분이 참여를 하셨고 회계 처리한 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외부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에서 별다른 의견을 표시 안 했다면 발견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발견을 했다면 회계처리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액법 회계처리 일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총액법이라고 해서 손실과 이익은 상관하지 않고 총계를 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순액법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금액의 중요성이나 거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회계법이 어땠는지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회계 법인이 순액법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펀드에서 원금에서 50%정도... 아주대학교 전체 불륜에 비해 16억이 소액이다라고 하면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는데 투자한 금액대비 50%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30억이 전체 천억 규모에서는 작은 불륜이 아닌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기획처장 김민구 : 일이 발생되기 훨씬 전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인지를 했던 거죠. 손실이 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때 평의원회 한분이 참여하여서 조사위원회를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거기에 참여하신 한봉희 교수님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도 조사위원회를 했고 지금 또 조사위원회를 해서 더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큰일이 난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사장님도 화를 내신 거거든요.

의장 강명구 : 전에는 법인에 보고할 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 안했습니까? 매월 법인에 보고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총무에서 결산을 매월 자금 집행에 대해서 총무처장이 매달 보고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 당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기획처장 김민구 : 볼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못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처장님께서도 그때 평가손실이 100억인 것 뿐만 아니라 확

< 간서명 란 >

의 장  - 14 -

정손실이 난 것을 알고 계셨다면...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당시에 경리팀장이 성도회계법인에서 한 유권해석을 이렇게 해석 할 수도 있다...

평의원 이순일 : 처리방식이 아니라 확정손실이 났다는 것은 알려주셨어야죠.

기획처장 김민구 : 확정손실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 성도회계법인 해석은 아직 확정손실을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처장님 이거는 환매에서 난 손실입니다. 그 계좌로 환매해서 난 손실인데 그게 확정이지 어떻게 확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의장 강명구 : 펀드를 팔아서 보니 15억 손해가 났다. 환매손실이 확정된 겁니다.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평가손실이 아닌 환매손실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이 2008년도 당시에 있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네. 그럼 처장님도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몰랐습니다.

의장 강명구 : 평가손실이면 얘기 안 드립니다. 확실하게 판매를 해서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계를 왜곡해서 결산서에는 없는 것처럼 한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유승익 교수님이나 한봉희 교수님께서 조사 하실 때도 전체 cash flow를 쫓아가지 않으면... 원금이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당시에 조사위원회도 몰랐다는 거죠?

의장 강명구 : 모르셨죠.

평의원 이순일 : 저희는 매번 펀드를 환매해서 새로 펀드를 매입한 돈을 다 맞춰봤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이 비어 있는 거죠.

평의원 강희진 : 감사를 할 때 샘플링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샘플에서 빠지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총액으로 분석적 검토를 하는데 자금의 불륨이 크게 되면 한 두건 정도 빠져도 이자 수익률을 봤을 때 0.5%, 0.1% 차이가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손실이

< 간서명 란 >

의 장  - 15 -

났다 안 닐다의 쟁점보다는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때그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보고가 안 되었다는 내부 통제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통제가 안 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자금이 운영이 되었다든가 적어도 자금이 투자할 때는 loss cut이 중요한데, 이익도 중요하지만 일정 손실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잘라 줄 수 있어야만 손실금에 대한 통제범위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사장님도 몰랐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었던 상당히 중요한... 30억, 20억, 10억, 50억씩 나가는 펀드에 대해서 위에 보고가 안 되고 원금을 상쇄시켜서 손실이 나지 않은 것처럼 자료가 꾸며져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기획처장 김민구 :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의장 강명구 : 2008년 3월입니다. 2007년 12월 28일에 법이 바뀌었는데...

기획처장 김민구 : 총무처장과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총장님께 보고할 때 총무처장이 있었어요?

평의원 이순일 : 안계셨습니다.

의장 강명구 : 2007년 12월 28일에 법이 바뀌었는데 알고 나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을 강희진 의원이 전공을 살려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백을 남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성도회계법인을 모셔서 깨끗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매듭짓고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의원 강희진 : 자리를 같이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되니까 서면으로라도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대학 평의원회 이름으로 성도회계법인에 이와 같은 사항을 질의하는...

평의원 강희진 : 이미 총무처에 성도회계법인의 해석이나 이런 의견이 있다 하셨잖아요. 성도회계법인에서 아주대학교 감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해준 것이 맞냐 이런 식으로...

< 간서명 란 >

의 장



- 16 -

의장 강명구 : 성도회계법인에서 2007년도 예산 자문의견을 입수해서 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질의서를 성도회계법인으로 보내서 답변을 하게 하든지 혹은 이 자리에 모셔서 공동 토론을 하든지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총무처에 그 당시 성도회계법인에서 받은 자문의견을 대학평의원회 의장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임정민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앞으로 사후 방지 체계에 대해서는 총무처에서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처에서 다 일임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투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이 소수지만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혹시 오해 하신 것 아닌가요? 위촉을 총무처에서 하지만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교내의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신 것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총무처가 임의로 총무처 직원선생님들끼리 한 것이 아니고...

기획처장 김민구 : 전문성 있는 교수와 외부자문위원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정보만 투명하게 공개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공개가 안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의장 강명구 : 시간이 벌써 두 시간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학칙관련 안건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교무회의 통과 한 거고 하나는 내일 교무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할 것을 저희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메일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발표해주시죠.

[김승권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심의안건 및 학칙 사전보고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강명구 : 질문해주십시오.

< 간서명 란 >

의

장  - 17 -

평의원 이재호 : 6쪽에 보면 의료원 설치 연구소 및 센터에서 SRC센터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MRC인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도 여기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별도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은 들어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 있고...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게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MRC를 설립해서 따서 하는 것과 이 경우는 설립 안 해놓고 따서 한 겁니다. 연구센터로 학교 체계에 넣으시려면 따로 신청을 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소프트웨어 특성화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정원조정은 되었습니까?

간사 김승권 : 일반대학원에 있는 정원을 쓰는 겁니다. 정부기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이의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이의가 있으시면 있다고 말씀해주십시오.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주시십시오. 제가 과반수가 되었는지 보고 확답 드리겠습니다. 이로서 보고안건은 끝났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대학평가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여건 및 재정에서 교수당 학생수는 17위이고 교수확보율은 1위입니다. 교수확보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국가에서 정하는 수치를 받으면 만점입니다.

평의원 김진우 : 1위인 학교가 10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처장 김민구 : 그 정도 되겠습니다. 웬만큼 잘하는 학교들은 만점이라고 봐야하고 요새 말하는 구조조정 학교들은 이런 것이 현저히 나쁜 겁니다. 저희학교는 그것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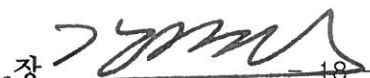
평의원 김진우 : 그럼 확보율은 만점을 받았지만 교수당 학생수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굉장히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결국 교수당 학생수가 낮아야 좋은 학교입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평의원 김진우 : 타 대학과 얘기를 하다보면 대학원들이 그래도 성적 좋은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일환으로 모교

< 간서명 란 >

의 장



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4학년 2학기부터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어차피 대학 장학금 주는거니까 그렇게 하면 우수한 학생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들도 인턴십 장학금이라 해서 4학년 때 인턴십 장학금을 줍니다. 과별로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원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에 해외에 까지 주니까 일반대학원에 주는 겁니다. 4학년 때 장학금을 줘서 일반대학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대학원 자체가 우수해지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평의원 김진우 :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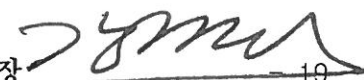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5시에 회의인데 제가 대답 할 수 있는 건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학평의원회 개최 일정 정례화가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건에 관해서 이순일 교수님 설명해주시고 이건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이 안건은 저희가 대학평의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수차례 건의 드린 겁니다. 대학평의원회 개최 일정이 정례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소집하다보면 성원이 어렵기도 하고 자료를 검토 하는 것도 예측을 못하다가 갑자기 자료를 받게 되어서 급해지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결산 자문에 관한한 1년 중 날짜를 못 박아 두자. 출장 일자를 잡더라도 그것을 피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확정적인 추정(안)이 논의된 다음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일정을 맞추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기획처에서 전향적으로 그런 요청들을 수용해주셔서 일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팀장 및 기획처 이수영 선생과 몇 번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날짜를 조정하기도 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추경 자문은 12월 마지막 금요일, 본예산 자문은 1월 마지막 금요일에 하며, 자료는 자문에정일 전주 수요일까지 대학평의원회에 송부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최종추경 자문을 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열리는 주의 수요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는 일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종일정(안)은 제가 아닌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에서 만든 것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가 있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질의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처장님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 실무와 충분히 얘기하셨으리라 생각되고 합의되었으면 그대로... 만약에 의견이 있어서 제가 조정을 해드려야 한다면...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의견 조율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었던 것은 기존 일정과 큰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4년간 기록 살펴보니 2011학년도 3차 추경을 2012년 1월30일, 2010학년도 3차 추경은 2011년은 1월 31일, 2009년은 2010년 2월 1일, 2008년은 2009년 2월 2일에 최종 추경을 자문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최종 추경 자문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해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처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피력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2차 추경이 끝이라는 점입니다. 3차 추경을 안 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며 2차 추경 자문일자를 12월 마지막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최종추경 자문을 1월말이나 2월초에 했고 그 이유는 법인에 제출하는 날짜를 맞추고자 한 건데, 이번처럼 진행하면 예년에 비해서는 최소한 한 달이 당겨집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반갑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한 달의 공백이 있는데 3차 추경이 과연 없을 것인지... 천재지변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면 할 수밖에 없겠죠. 우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3차 추경의 내용이 법정부당금 내용이 조정된다든가 기금적립액 또는 차기이월액과 같은 민감한 것들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3차 추경이 있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미리 날짜를 못 박는 취지가 훼손됩니다. 처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2차 추경이 최종추경이라는 것을 확약하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확약한 것은 아니지만 2차 추경을 최종으로 끝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적게 하면 좋겠죠. 또 한 가지는 2차 추경에서 끝내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더 이상의 추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마지막 추경이라고 예산팀장이 저랑 의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가자고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지

< 간서명 란 >

의 장



막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2차 추경하고 그 다음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추경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천재지변이 없는 한 없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12월 마지막 금요일에 2차 추경이 끝나면 등록금심의위원회 날짜가 12월 26일부터 1월 9일로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경 자문 회의한 회의록이 다 완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의장 강명구 : 대부분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어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지연되고 이랬거든요. 그럴 경우엔 저희가 대안으로서 마지막 추경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을 오셔서 듣게 하면 회의록 작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럴 수도 있죠.

평의원 이순일 : 그 다음 이수영 선생도 안 오시고 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일정을 12월 26일에서 1월 9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조경숙 팀장과 이수영 선생께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은 학생위원들과 등록금심의위원이 결정할 일입니다.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일정을 정했으니, 이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일정을 연계 짓기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 및 학생위원들과 협의해서 이 날짜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통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통보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시다만,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 및 학생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건지, 연락을 받은 바가 있는지...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학생처하고 얘기를 해서... 학생들은 아시고 계시는 얘기에요?

평의원 임정민 : 날짜는 전달받았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문제가 있어요?

평의원 임정민 :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좀 더 오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날짜가 최대한 앞으로 당기로 뒤로 미룬 날짜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좀 더 당기고 뒤로 미룰 수 있으면

< 간서명 란 >

의 장



- 21 -

미루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등록일 50일전보다 뒤로 갈 수는 없으므로 1월 9일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록 말씀하셨는데,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시오. 그동안 평의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는 날짜를 보면 통상적으로 3주안에는 공개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회를 보면 49일, 35일이 걸렸습니다.

간사 김승권 : 답변을 하자면 4시간 회의를 하면 두 사람이 2주 동안 계속 해서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다가 위원분들께 피드백 받고 하는 과정이...

평의원 이순일 : 제 얘기는 지금까지는 평균 3주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주, 2주 하다가 거의 3주를 3년 이상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9일, 35일 이렇게 늦어지니까 정보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전달의 왜곡 또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38차 평의원회 때 건축위원회에 학생대표 1인과 참관인 2인이 참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대표 2인이 기획팀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처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못 넣어주냐고 물으니 “아직 회의록이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시로 대표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오라. 그 대신 건축위원회에 더하여 학생대표가 요구한 설계위원회에도 참관인 자격으로 2명이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처 실무자인 이수영 선생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학생대표 2인이 건축위원회에 참관인으로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아해서 제가 당연히 이수영씨에게 물어봤죠. “학생대표들의 반대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대표들이 잘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라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간 걸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임정민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임의원이 아주대 토탈 공지란에 그리고 트위터를 통하여 건축위원회 학생대표 선임관련해서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학생대표를 속이고 기만하였다는 비난 글을 올려 큰 분란이 일어났

< 간서명 란 >

의



- 22 -

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그간 오간 모든 편지, 회의록, 이메일, 기획처/학생처 공문 그리고 전화 통화 기록까지 다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약간의 불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대표들이 추가로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한 설계위원회와 38차 대의원회에서 다른 건축위원회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기는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교수대표로 참여하고 계신 김상배 김장훈 두 분 교수님이 아무런 추가 설명 없이 설계위원회에 참여하셨기에 학생대표도 그런 것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도 기획팀에서는 마치 학생대표들이 학생대표 1인이 건축위원회에 자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합의한 것으로 제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100%를 믿고 그에 준하여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심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모든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처에서 답장(공문)이 왔습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기획팀은 부총학생회장과와의 대화를 통해 건축위원회에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자꾸 캐묻자 실무자인 이수영 선생은 저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공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획처장과 팀장님께서 부학생회장에게 건축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부 학생회장은 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기획팀에서 (학생대표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학생처로) 발송한 공문에 대한 반박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설계심사위원회에 참여하였으므로 기획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학생들 의사가 아닌 기획처의 자의적 판단을 마치 학생들의 자발적 판단인 것처럼 의장에게 교묘한 위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생대표인 동료 평의원회 의원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맹비난하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렸으니 640명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회 의장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길을 지나가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찮다고 생각한 일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조금의 의심의 여지없이 저는 학

< 간서명 란 >

의 장



생들이 당연히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과 제자이기 전에 대학 공동체의 당연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안전인 건축위원회 학생대표 선임여부 관련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펀드 관련 일도 처음에는 자그마하게 시작합니다. 자꾸자꾸 쌓이다 보니 일이 감당 못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일이 이 지경이 됩니다. 그 결과 불신이 쌓이고 쓸데없이 여러 개의 공문을 일일이 확인해야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누구의 잘못을 떠나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행한 말에 대하여 잘 책임을 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정 개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건 사실이지요, 처장님?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보기에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학생 측에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학생 측에서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에서 동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을 들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인정을 안했지만 그러나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생회에서도...

의장 강명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들이 8월 말에 기획처를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모든 문건을 제가 다 복사해 놓았습니다. 좋은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알았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임정민 의원 말씀하십시오.

평의원 임정민 :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메일에 적혀있는 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전달과정에서 오해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생들이 참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도 없고 먼저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생대표들이 오해를 하고 저한테 결례를 했는지...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임정민 : 결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또 말씀해 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등록금심의위원 학생이 4명이죠?

평의원 임정민 : 학생은 올해 초에 3명이 들어가고 1명이 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름은 4명으로 되어있는데 대학원생까지... 4명이 이 일정에 모두 동의했습니까?

평의원 이홍평 : 지금 논의중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중요한 것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오늘 지나 가고나면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나중에 가서 또 일정에 이견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4주전부터 했습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 두 분이 있는데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등록금심의위원 학생대표까지 합의가 되었는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는 의사를 밝혀야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서 보면 누구는 몰랐다 누구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또 역시 우리가 논의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평의원 이홍평 :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다른 분들까지 다 의견을 수렴해서...

평의원 임정민 : 그래서 아까 공식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한 거고. 저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추경입니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등록금심의위원회 끝나고 3차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 예산으로 들어갔고 이럴 거면 등록금심의위원회 뭐 때문에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날짜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날짜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3차 추경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을 뒤엎는 경우가 생기면 문제라고 생각 하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그 얘기는 좀 전에 이순일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처장님도 원칙적으로 2차 추경이 끝이다 하셨으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임정민 :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리고 2차 추경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전에 완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전과 같은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이 아니고 중에 완료가 되겠죠.

의장 강명구 : 논의 안건 1번과 2번 건축위원회 학생대표 선임관련과 대학평의회 개최일정 정례화 확정 이것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평의원 이재호 :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건을 한발 옆에서 봤는데 항상 어떤 것을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할 때는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만 범하는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제일 좋은 것은 같은 평의회에서는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의회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아울러 저희가 대학평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인데 기획처에서 학생대표를 만나서 얘기할 때 대학평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사항입니다. 평의회에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결정이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말로 처리하다보니까 되는 걸로 생각하고 흐지부지되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한번이라도 서로 통화를 했으면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반박문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고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됩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교수회 의장의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심하셔서 공공의 일이 왜 중요한지 문서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권 : 기획처의 업무라고 하시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문 봤습니다. 이수영 과장이 의장님께 말씀 드린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의장님께 말씀 드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이나 위원이 아니냐를 관심 없이 들으시면 서로가 그냥 참여

< 간서명 란 >

의 장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그 말씀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그것을 변경하면서 구두 설명을 했으니까 변경할 수 있다? 그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간사 김승권 : 이렇게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판단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러면 대학평의원회는 왜 있습니까?

간사 김승권 : 저도 회의록을 봐야겠지만 그때 저희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의견을 학교에 주시면 존중해서 학교가 최종적으로 판단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거기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고수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도 대학본부가 수용하지 않으려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대학본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의원회가 의견을 바꿉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간사 김승권 : 평의원회의 의견은 결론이 났고 그 결론을 학교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는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행정적으로 할 일입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학평의원회가 이의를 제기하든지 그럴 것입니다. '대학평의원회가 의견을 수정했기 때문에 본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라는 뜻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사 김승권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평의원회 의견이 수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평의원회가 A라는 의견을 줬으면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A라고 결론 날수도 있고 A-라고 결론이 날수도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래서 A-로 결론이 났으면 대학본부가 결론을 내린 거지

< 간서명 란 >

의 장

 - 27 -

대학평의회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A-에 대해서는 대학본부가 책임질 일이고, 그럼 임정민 의원도 A-에 대해서 대학본부와 얘기를 해야지... 대학평의회에서 한번 의결한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간사 김승권 : 임정민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언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결정하고 기안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없을 때 이수영 과장이 보고 드린 걸로 알고, 보고 드리면 저한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한테 보고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건축위원회에 학생들이 참관인 2명만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큰 이의가 없었습니까?” 하니까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말이죠. 그게 말장난 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메일을 썼습니다. “기획처장의 설득에 학생대표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기획처의 일방적 결정사항인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상기 직원 두 분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기획처장의 설득에 설계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학생대표 2인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건축위원회에 1인 학생대표 위원 없이 2인 학생대표 참관인을 학생대표가 수락한 것으로 보고하고 이런 사실관계를 기획처장이 학생처장에게 8월 8일 보낸 공문의 형태로 평의회 의장에게 제시한바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 후 임정민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번 시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나중에는 임정민 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합의한 적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처 직원들은 저한테는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겨줬습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말이 나온 김에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평의회 의장이 기획처에 보낸 공문 건도 말씀드립니다. 이 공문에서 “건축위원회에 들어가면 설계심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시공사선정위원회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설계심사위원회에 위원들을 넣은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교수대표 2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들어간다.” 고 답이 왔습니다. 거

< 간서명 란 >

의 장



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왕 시작한 언급이니 좀 덧붙이자면) 묻지도 않은 질문에 공문 말미에 “국제학사의 시공사 입찰참가 자격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라고 첨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 했을 때는 시공사 선정관련해서 많은 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이 “매일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 어떤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 했는데 논리적 연관관계가 없는 답변으로 어느 날 갑자기 관련 위원회에 참여 하는 것에 덧붙여서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교수대표 두 분 김상배 교수님과 독고운 교수님에게 포워딩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임정민 의원이..

평의원 임정민 :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요청했던 것이 3명에서 2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2명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평의원회 이름으로 2명이 들어가는지 교수회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의장 강명구 : 당연히 대학평의원회로... 2명 수정한 것은 37차 끝나고 했고 이의제기를 해서 38차에는 3명으로 하고 학생대표 2인과 참관인 1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평의원 임정민 : 대학평의원회 이름으로 2명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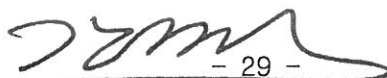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평의원회 이름으로 2명 들어가고 1명은 요구한 상태인데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평의원 임정민 : 사임과 새로운 위원 선출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김장훈 교수님이 독고운 교수님으로 바뀌시는 과정인데 말씀 없이 바뀌셨는데 여기에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표를 2명 선출한 것이지 교수회에서 2명을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의장 강명구 :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교수대표 2인중 한명이 연구년으로 빠졌기 때문에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수회에서 대의원회를 열어서 “교수 대표 한분이 빠지셨는데 대안을 누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추천바랍니다” 했을 때 대의원회에서 독고운 교수님을 추천을 했고 저희가 받아

< 간서명 란 >

의 장



들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그 말이죠?

평의원 임정민 : 평의원회에서 2명이 선출한 것인데 그것을 왜 교수 대의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더 논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임정민 의원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은 교수대표 2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수대표 2명을 고를 때 어떤 분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자냐 하는 것은 두루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물을 때 채널을 교수들이 모인 교수회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대표를 뽑는데 이 자리에서 학생대표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거기에 대해서 논한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과정이 이렇게 되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이라도 전해주시길 수 있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

평의원 이순일 : 38차 다음에 회의가 오늘이니까 오늘보고가 되면 되는 거지...

의장 강명구 : 전체 교수 포탈로 전부다 공고를 했고 당연히 교수대표 누구 했다는 것은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교수대표인데 일일이 할 일이 많은데 학생대표에 전화해서 일일이 알려드려야 합니까?

평의원 윤성승 : 임정민 의원의 의견은 평의원회에서 교수대표를 뽑기로 했으니 평의원회에서 교수 분들께 의뢰를 했지만 평의원회에서 일임한 교수 두 명 중 한명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평의원회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문 아닌가요?

평의원 임정민 : 맞습니다.

의장 강명구 : 거기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건축위원회가 널모레 모이는데 저희가 7월에 모이고 10월에 모입니다. 이런 것들은 관행상 학생회에서 하듯이 의장 혼자 하기 싫어서 대의원회를 열고 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사전이 아닌 사후에라도...

평의원 이재호 : 가능하면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의장 강명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민 의원이 발제하신 마지막 안전 발표해주십시오.

평의원 임정민 : 현재 아주대학교 본교에서는 교직원들에 한해서 스쿨버스요

< 간서명 란 >

의 장



- 30 -

금이 티켓으로 발권되는 형태이고 주차요금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쿨버스와 주차비 다 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료원을 알아본 결과 의료원은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이 한 달에 45,000원을 월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명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들이 680분 계신데 이분들께서 매달 45,000원씩 낸다면 충분히 큰 재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45,000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용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견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효철 : 의료원은 주차요금체계가 최초에 고객도 무료였어요. 왜냐하면 고객 분들이 무료로 되어있고 의료원내의 주차장이 다 무료니까 인근 아파트에도 대고 장기주차가 많고... 최초 고객에게 무료를 하다가 유료화를 시행하니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원에 진료 받으러오는데 돈을 받냐. 그래서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최소한의 돈만 올려서 고객한테 부과를 해서 요금체계를 정했고 그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니까 그래도 환자분들이 와서 차를 주차하고 진료 받는데 딜레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서 2차 방안으로 교직원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해서 주차구역을 정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면서 유료화를 한 겁니다. 목적이 고객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 쪽은 고객이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생이 주차가 어려워서 수업을 받는데 제한을 받는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의료원 교직원이지만 어떻게 대학 교직원만 무료지 우리는 유료인데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의하는 취지에서 의료원하고 비교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점이... 발의한 취지와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는 꼭 수익증대를 위해서 교직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차를 더 통제하기 위해서 100,000원 단위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런 겁니다.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학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직원까지도 수익증대를 위해서 활용을 하자는 것은 제 생각과 틀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의원 임정민 : 얼마 전에 교수님들 전용 주차공간이 생겼습니다. 교수님들이 아시다시피 교수님들이 수업이 급박해서 주차 공간 찾을 수 없어서 수업

< 간서명 란 >

의 장



- 31 -

에 늦으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생긴 경우입니다. 똑같이 학생들도 주차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이 4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요금이 필요하지는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의장 강명구 : 학생 중 차를 가지고 다니는 학생이 몇%나 됩니까?

평의원 임정민 : 정기권 발행이 학기권으로 해서 총무처에 문의를 했을 때 약 6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12,000명에서 600명이면 5%... 우리가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는 정책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이게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특히 주차요금을 통한 수익금을 스쿨버스 운영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들리는데, 스쿨버스 운영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그 재원을 조달 하는 것이 할 만한 일인지 의논하면 되지... 이 안건은 정책적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책의 수혜자가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나 기관들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 대한 후생복지와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같지 않습니다. 사실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총무처에게 우리학교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학교에 들어오는 자동차 수를 줄이는 거냐? 그럼 아예 주차허가증 발급을 전면 폐지하든지, 100,000원이나 500,000원씩 부과해서 차 없는 캠퍼스를 만들 건지... 총무처의 답변에 따르자면 결코 수익창출을 위해서 주차관리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학생들은 요금이 얼마입니까?

평의원 임정민 : 학기권으로 했을 때 4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승권 : 제 기억으로는 월1만원입니다.

의장 강명구 : 총무처에 한번 알아보시고 실제로 학생들이 차를 많이 가져오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데 몇%의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지, 위반했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처리하는 행정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잘못했을 경우에 끌고 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한번 검토해서 학생대표에게 말씀 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 간서명 란 >

의 장



나서 또 한번...

평의원 윤성승 : 주차문제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외국에 있다가 아주대학교 왔을 때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이 학교가 보니까 faculty주차장과 학생 주차장이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 몇 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임정민 의원도 외국에 나가보면 학생 주차장은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보다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는 곳도 많고 거기서 아예 셔틀버스를 타고 오게 하든지 학교 안에 있어도 굉장히 먼 곳에 있거나... faculty주차장이 학교 내에서 가장 가깝게 되어있어서 교육과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faculty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말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주중에는 좋은 선진국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수 전용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교수학생이 평등하게 주차했습니다. 교수가 수업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저 위에 가서 주차하고 헬레벌떡 와서 수업 잘 되기 힘들거든요. 요번에 교수전용 주차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저도 몇 번 이용했어요. 주차정책 전체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교직원이 돈을 안내니까 교직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수익금으로 스쿨버스를 하자는 것은 스쿨버스를 위해서 주차문제를 연결시킨 것인데 주차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돈을 걷어서 스쿨버스를 보전하자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하고 나서 교직원들한테 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임정민 : 선행되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따져도 될 문제가 있는데 선행될 문제를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다시 문제가 생기면 논의하자는 말씀이시죠.

평의원 윤성승 : 원칙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죠.

평의원 강희진 : 아까 임정민 학생이 얘기할 때 수익적 형평을 고려하자는 의미가 학생들의 정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교의 모든 행정이나 모든 과정이 학생 중심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으니까... 학생은 돈도 없는데 주차비를 내고 교직원들은...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

< 간서명 란 >

의 장

 - 33 -

어요. 만약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학교는 학생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교직원이나 학생들까지 고르게다 대우를 받아야하는데 형평을 찾는다는 것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학생과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을 놓고 봤을 때 차 가지고 다니는 학생에게 월1만원에 정기주차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층의 오만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처음에 발의가 되었다면 기왕에 그렇게 해서 돈을 거치면 이렇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생각을 학생들과 다시 한 번 얘기해보는 것은 어떨까...

평의원 임정민 : 처음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주차문제는 똑같은 사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요금 수준을 조금씩 둘 다 같이 내면 학생들도 줄고 교직원선생님들도 조금 부담을 하겠지만 원래 있던 비용에 대해선 줄지 않겠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스쿨버스는 현재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울곡관 앞에서 6시 되면 먼저 서고 원천관 앞에서 서고 그리고 학생들이 타거든요.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비용으로 스쿨버스 돈이 나가는 건데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스쿨버스는 학생들이 서서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서서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 학생들은 대부분 서서 가요. 그런데 스쿨버스가 한 대 더 있었으면 서서갈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평의원 윤갑희 : 제가 볼 때는 여기 식구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 쪽에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스쿨버스를 늘려 달라. 또 학생들 요금을 내려달라 무료로 해 달라 거기까지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어느 쪽 방향으로 할거냐는 누가 돈을 내고 평등한 것을 따지더라도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스쿨버스를 증차 해 달라. 왜냐하면 앉아서 못가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돈도 없는데 무슨 주차요금을 내냐 받지 말라 이렇게 요구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임정민 : 스쿨버스 얘기는 하나의 예로 들은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요금이거든요.

평의원 강희진 :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같은 수익자로서...

평의원 이순일 : 계속 조언을 주시는 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주차요금을 내려달라. 스쿨버스를 늘려 달라. 이것은 좋은데 오히려 임정민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것이, 학생과 교수는 똑같다...

평의원 강희진 :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차를 똑같이 이용하니까 주차요금을 고르게 적용하는 것을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평의원 임정민 : 저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주차요금이 싸져서 좋기 때문에 내리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하면 학교의 수익을 조금이라도 늘릴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평의원 윤갑희 : 그런데 지금 여기서처럼 얘기하시면 교직원에 대한 복지와 학생에 대한 복지를 똑같이 생각했다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차를 해 달라 혹은 요금을 내리거나 요금을 무료로 해 달라 이런 정도의 요구를 하시는 것이...

평의원 임정민 : 그것은 학생 측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평의원 이재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리후생을 줄이면 수익증대가 되겠죠. 하지만 복리후생 조치 자체의 의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수익증대라는데 너무 fix되어 있지 마시고 학생들이 요구하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요구할만하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스쿨버스가 모자라니 늘려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수익증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죠.

평의원 임정민 : 교직원들의 스쿨버스요금이나 주차비에 대해서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 간서명 란 >

의 장



- 35 -

에 사립 고등학교에 주차코너가 부족하다고해서 교직원들에게 차를 못가지고 오게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대학이지만 대학의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같이 생각해보면 이걸 같이 놓고 학생의 주차요금과 교직원의 주차요금을 같이 놓고 얘기할 성격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입장도 한번 직원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성숙한 거라고...

평의원 윤성승 :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수익증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학교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거꾸로 수익 증대하는 방향으로 학생들 등록금 인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어요. 등록금인상과 교직원들이 다른 학교보다 월급을 적게 받고 있으면 등록금을 받아서 남은 돈을 교직원 월급을 인상하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 등록금을 올려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수고하시는 교직원들이 다른 학교보다 급여가 적으면 그 급여를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면... 자꾸 얘기가 와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적어도 임정민 학생이 학교 수익증대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의장 강명구 :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법정전입금 6억9천을 수익증대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저는 보니까 우리학교 처음 와서 느낀 것이 굉장히 학생과 교수와 굉장히 평등하게 주차를 하고 있다. 교수전용주차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교수들이 학생들과 섞여서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산관 뒤쪽에 산에 교수들도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해도 서울대가면 교수전용주차구역이 다 있어요. 바로 앞에 그걸 학생들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교수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학생들이 이런 것 까지 주장하는걸 보니까 교수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의원 강희진 : 제가 볼 때는 불만이 아니고 사고예요. 그런 생각을 할 거 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용하지 않아서 중용한다가 아니라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어요.

< 간서명 란 >

의 장



- 36 -

평의원 이순일 : 대학 구성원으로서 기능이 좀 다른데 그걸 임정민 학생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원선생님들, 교수들, 대학을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좀 다른데...

평의원 강희진 :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다른 학생들과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의를 한 거지 개인적인 생각 같지는 않고요.

평의원 이재호 : 이효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5,000원 의료원 그거는... 병원에 오시는 손님들께...

의장 강명구 : 그러면 임정민 의원이 발의하신 학생 주차권에 관해선 기록을 남기기로 하고 총무처가 보다 본질적인 주차 정책에 관한 기본을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나쁘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6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해주신 이순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간사 김승권 : 학칙 심의가 한진 남았습니다. 아까는 말씀드린 것은 내일 할 것이고 이거는 지난번...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16쪽 신구대비표 보겠습니다. 별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먼저 10조에 의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학칙에는 아직 없고 산학협력단이 생긴지 10년이 넘어가는데 현재 우리 대학 직제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학칙에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란 명칭만 언급되어 있어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의장 강명구 : 조금 들여다봐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산학협력단이 중요한데입니다. 연구비를 다 수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연구 관련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기관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산학협력단 정관은 누가 만든 건가요? 별도법인이면 별도 이사회가 있어야죠.


간사 김승권 : 이사분이 한분 계시고 산학협력단을 만든 상위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가 있고 이사가 단장을 겸하게 되어있고 그 통제를 총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사가 1인 이사 체제입니까?

간사 김승권 : 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윤성승 : 현재 별도의 법인으로 하게 되면 산학협력단에서 수익이 생긴 거를 학교로 전입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현재도 하고 있죠.

평의원 윤성승 : 별도의 법인을 하게 되면...

간사 김승권 : 현재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학칙에 명칭만 언급되었고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단계입니다.

의장 강명구 : 정관이라면 어디?

간사 김승권 : 직제규정이요.

의장 강명구 : 법인에서 말하는 정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의원 이순일 :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이니까 그 법인의 정관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의장 강명구 : 산학협력단 법인의 정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의원 윤성승 : 정관은 있고 거기 세부사항을...

간사 김승권 : 이미 하고 있는데....

의장 강명구 :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근거를 만들어야 하나요?


간사 김승권 : 보통 학칙에 보면 직제규정이나 정관에 근거를 갖고 있는데...

평의원 이재호 : 별도 법인에 대한 근거도 이렇게...

간사 김승권 : 타 대학 같은 경우도 다 상위법에 놔두고 갖고 오는 겁니다. 18쪽 보시면 공공정책대학원의 일반 행정을 행정학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교육대학원의 교육경영을 새로 신설하고 교육행정을 폐지하는 경우하고 상담심리를 학교상담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 하고 공통사회교육을 지원자가 없어서 폐지하는 거하고 대학행정관리도 지원자가 감소되어 폐지하는 과정하고 이러닝도 지원자가 감소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상담심리와 장애지원교육과 같은 경우는 신설 하는 거고요. 이것과 같은 경우 교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해서 올리면 교과부에서 이 전공은 적합지 않다고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무회의를 통해서 평의원회를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임정민 : 학교상담과 상담심리는 아예 다른 내용입니까?

간사 김승권 : 예 좀 다르다고 합니다. 19쪽에 보시면 C⁴ I과정이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20쪽에 보시면 정보통신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재교육형으로 해서 전공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그 회사와 협약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정보통신대학원에서 수익이 많이 납니까?

간사 김승권 : 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특화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화되고 지원이 잘 되는 그런 과입니다.

의장 강명구 : 화요일, 목요일 날 특수대학원하고 복잡하고 짜증났는데 막상 대학평의원회 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불평 하면 안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원안대로 통과...

의장 강명구 :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 펀드투자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정보공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 간서명 란 >

의 장



펀드투자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정보공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2012. 10. 22.

펀드문제 진상조사위원회

인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황효진
회계법인 새시대 공인회계사 김영무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봉희
아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순일

조사의 배경-1

- 본교의 펀드투자가 처음 알려진 것은 제9차 대학평의원회의(2009.02.02.)
 - ✓ 관리운영비 항목에서 자금운용수수료 6천8백만원 발견한 것이 계기
- 대학평의원회는 펀드투자 내역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대학본부는 이를 거부
 - ✓ 주장 1: 우리대학의 유가증권 간접투자상품(펀드) 투자는 발전기금, 건축기금 등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장기투자의 성격'이며 '펀드 투자의 전체 규모 및 학교자금 대비 비율, 펀드 투자 성과의 교비예산 편성 및 사용, 결산 반영 등의 제반 관련 행정'이 모두 적법
 - ✓ 주장 2: 펀드투자는 관행
- 대학본부가 펀드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2008학년도결산(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지 못함
 - ✓ 대학과 재단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없이 결산자료를 정부(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
 - ✓ 대학평의원회에 제공하거나 공시한 결산보고서는 정부 제출용 결산보고서와 펀드투자 내역에 관한 기장 내용과 형식이 상이



조사의 배경-2

- 대학평의원회의와 교수회가 펀드투자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지속하자, 대학본부는 2차례(2010년 5월 25일과 6월 1일) '공식의견'을 내며 펀드투자의 위법성 및 재무제표 작성 상의 문제 부정
- 교수회는 2010년 12월 21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아주대학교 교비 불법 투자 및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아주대 교수회 공문 제10-29호)을 제출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12.21 - 2010.12.24 기간 동안 실태점검을 하고 조사결과를 공문(사립대학지원과-391, 2011.01.17)으로 회신하며, 민원 제기 사항 18건 중 14건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통지
-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과 이사장에게 '사학기관 유동자금 및 적립금 증권 투자 관련 실태점검 결과 통보'라는 공문(사립대학지원과-391, 2011.01.17.)을 보내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
 - ✓ 교과부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에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조치결과를 관련 증빙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 ✓ 본교는 교과부에 '실태점검 통보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

진상조사위 구성 및 활동

-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펀드투자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합의
-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각각 공인회계사 1인과 교수 1인을 추천하여 총 4명으로 조사위원회 구성
 - ✓ 대학본부 추천: 공인회계사 김영무, 경영대 교수 한봉희
 - ✓ 교수회 추천: 공인회계사 황효진, 자연대 교수 이순일
-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펀드 투자 문제와 관련된 제반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
 - ✓ 펀드투자 내역과 이에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는 총무처장의 협조에 위원회가 요청하면 총무처가 제공
 - ✓ 중요 자료들은 조사보고서 후미에 첨부
- 진상조사 결과는 총장과 교수회 의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2012.10.17. 구두 보고 되었으며, 최종보고서가 총장과 교수회 의장에게 각각 제출됨



펀드투자 요약-1

- 투자한 펀드 계좌의 수는 총 77개, 매수원가 1,479억원
 - ✓ 결산서에 기재된 펀드계좌 49개, 매수원가 900억원
 - ✓ 49개 펀드계좌 중 42개는 환매, 손실이 큰 7개 계좌는 아직 보유 중
 - ✓ 회계연도 중에 매수 및 환매가 완료된 펀드계좌 28개, 매수원가 579억원
- 환매된 42개 펀드의 환매수익은 15.89억원 (수익률 1.96%)
 - ✓ 계좌 당 평균보유일 612일, 평균 매수원가 19.34억원
 - ✓ 계좌 당 평균수익 3천8백만원, 연평균 수익률 1.17%
- 회기 중 매수와 환매 완료된 펀드의 환매수익은 19.89억원 (수익률 3.43%)
 - ✓ 계좌 당 평균보유일 115일, 평균 매수원가 20.68억원
 - ✓ 계좌 당 평균수익 7천1백만원

펀드투자 요약-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좌 수	19	36	35	19	15	7
투자원금 (억 원)	290.07	724.90	633.76	293.45	213.12	88.12
기금 (억 원)	385.19	459.52	505.77	561.98	527.55	367.61
예산규모 (억 원)	1,605.63	1,616.58	1,836.12	1,954.13	2,235.44	2,350.90
손익총계 (억 원) ¹	1.07	13.99	5.55	-6.56	-3.48	-67.26
손익총계 (억 원) ²	107	13.99	5.55	-7.20	-16.79	-74.54

¹ 선물환 미정손실 제외

² 선물환 미정손실 포함



펀드투자 요약-3

기중 28개	실현이익	19.89억원	기회비용 (상실 이자수익) 이자율 5% 또는 6% 단리 계산
			미정손실: 대학본부/재단 '선물환 계약 무효' 주장하며 지급 거절
환매 42개	실현이익	34.72억원	환매수익 15.89억원
	실현손실	-18.83억원	순 손실 -22.58억원 (-34.10억원)
	5% 기회비용	-38.47억원	
	(6% 기회비용)	-49.99억원	
보유 7개	평가손실	-31.16억원	순 손실 -54.00억원 (-58.60억원)
	5% 기회비용	-22.84억원	
	(6% 기회비용)	-27.44억원	
	미정손실	-21.23억원	손실소계 -75.23억원 (-79.83억원)
손익총계		-77.92억원 (-94.04억원)	손실합계 -97.81억원 (-113.93억원)

조사 결과: 위법한 펀드투자

- 2007. 12. 28 이전**
 - ✓ 2007.12.28 이전에 이루어진 본교의 펀드투자는 논란의 여지 없는 위법
- 2007. 12. 28 이후**
 - ✓ 증권투자 총액이 적립금의 1/2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개정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투자한도 제한규정을 위배하며 50억원을 2008.2.26.자로 펀드에 추가 투자한 것은 행정과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이후도 유동자금에서 펀드투자
 - ✓ 적립금의 1/2을 초과하여 펀드에 투자한 문제의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음
- 유동자금 투자**
 - ✓ 유동자금과 적립기금 통합 운영은 물론 유동자금 펀드투자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위반
 - ✓ 채권형 60억원을 유동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임의 변경하여 제외하고 펀드투자액이 233억원인 것으로 보고한 것은 감독 관청인 교과부의 지침 위반

조사 결과: 정보공개 회피

대학평의회 무력화	상이한 예 결산 정보	중요 정보 미공개
<p>대학 본부는 대학평의회의 요청에 따라 펀드투자 내역과 관련 정보를 제공했어야 함.</p> <p>요청에도 불구하고 펀드투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임</p>	<p>외부 감독기관과 내부기관에 불평등하게 예·결산 자료 및 관련 재무제표를 제공한 것은 "대학본부의 의도적 정보공개 회피"</p>	<p>펀드 단기투자(회기 중 매입/환매) 및 확정손실 발생 사실을 은폐</p>

조사 결과: 의도적 회계처리 왜곡

<p>유동자금 관련 계정분류 왜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 결산서에는 유동자금이 재원인 것으로 기재했다가 '08 결산서에는 적립금(특정기금)에 귀속시킨 경우가 4건 53억원 (부동산펀드 18억원 + 주식형펀드 35억원). ✓ '07학년도 결산서에 적립금(특정기금)이 재원인 것으로 기재했다가 '08학년도 결산서에는 유동자금에 귀속시킨 경우가 3건 60억원(채권형펀드 40억원 + 채권 20억원)
<p>실태보고 왜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펀드투자 내역을 교과부 지침('교비회계 적립금 투자·운영 현황보고 작성법')에 따라 보고하면 적립금 1/2 초과 투자한 문제와 기금별 손실액이 투자원금의 1/2 초과 사실이 들어남 ✓ 채권형 60억원을 누락하고 기금 펀드투자액이 233억원인 것으로 보고
<p>확정손실 은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증권 ELS 2계좌(삼성SDI 20억원, LG 전자 외 30억원)에서 각각 발생한 2008년 결산 기준 4.96억원과 13.87억원의 확정손실 처리 회계 왜곡 ✓ 손실 발생을 은폐하고자 펀드환매 손실 18.83억원을 선수수익(또는 기타선수금)으로 잡았다가, 나중에는 예금이자에서 차감하여 보고

결론 및 제언

- 펀드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자금운용, 펀드투자 관련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펀드투자 사실이 드러난 이후의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 확인.

1

안정적 자금운용을 하지 않고 위법한 펀드투자를 과도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한 과오를 시인할 것

2

보고서에서 지적인 문제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펀드투자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

펀드투자 문제 마무리 조치 - 1

투자정보 일괄 정리

엑셀 파일 작성

모든 펀드투자 정보 (2001학년도부터 모든 자금에 관한 투자종류, 투자기관, 투자일, 투자종목, 투자액, 발생이자, 이자율, 만기일, 인출일, 인출금액 등)에 대해 엑셀 화일 작성

회계처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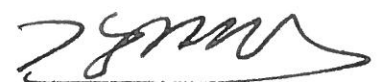
회계처리 점검

예·결산 자료 및 관련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회계 처리가 왜곡된 사례들을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

투명한 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

예·결산 자료 및 관련 재무제표를 포함한 중요 정보들을 대학평의원회 및 대학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



펀드투자 문제 마무리 조치 - 2

획정손실 처리 확인

보유 중 펀드 관리

선물환 분쟁 처리

손실 처리

펀드투자로 발생한 손실들을 처리한 과정은 적절했는지 재점검

펀드 관리

환매하지 못한 펀드들로 인한 추가 손실(기회비용 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선물환 대처

선물환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것이 법인과 대학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원금회복 가능성이 없는 펀드들에 대해 손실 상태에서는 환매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이는 투자손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됨. 대학본부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아직도 보유 중인 펀드들의 처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임

선물환 관련 미정 정산손실 현황

✓ 하나은행에서는 선물환 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선물환 가지급금 원금에 이자를 합산한 20.5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 2012년 5월 4일 현재 선물환 가지급금 이자 7.28억원은 2010년 5월 31일 현재 가지급금 이자 2.91억원에 비하여 4.31억원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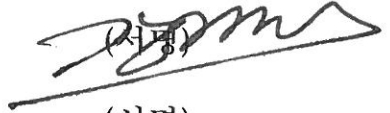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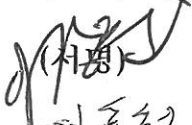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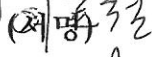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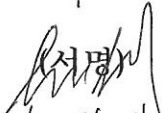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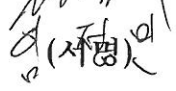



✓ 법인과 대학이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지급금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선물환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 20.58억원은 2012년 5월 4일 기준으로 평가한 담보펀드의 자산 가치 23.79억원의 86%를 상회.

✓ 이 추세라면 1~2년 안에 상환을 요구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금액이 담보펀드의 자산 가치를 초과



2012년 10월 22일

의 장	강명구	(서명) 
부의장	조중열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순일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강준	(서명) 
평의원	이효철	(서명) 
평의원	이흥평	(서명) 
평의원	임정민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기 록	김승권	(서명)